

불교, 디지털 시대에 '돌보기'

불교학자들, 불교평론 만해축전 세미나서 디지털 사회상 고찰

패러 추구 범죄 예방위한 '수범수제' 강조 가상현실·감각 팽창 등 포교 방편 활용

현대사회의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이 있다. 이제 인간은 디지털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불교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적용할 것인가는 시대의 숙제가 됐다. 이런 고민은 9월 7일 열리는 <불교평론> 주최 만해축전 기념 세미나를 보면 잘 나타난다. '디지털 문명시대와 불교'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 각 분야 학자들은 디지털 환경 속 불교의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이날 발표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교리 해석의 필요성과, 불교예술의 혁신, 선정성과 폭력성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계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주

목된다. 특히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선정성과 폭력성' 발표를 통해 수범수제(隨犯隨制) 정신에 의한 법 제정과 명상을 통한 언행 순화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시대 사회 폭력 현상을 줄이는데 불교계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는 감각적 쾌락 추구가 가상세계까지 확장되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예전에는 보지 못한 수많은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형사범죄는 1990년과 비교해 248%, 2000년에 비교해 58% 증

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살인과 강간과 관련된 신종범죄는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는 상황.

허 교수는 "쾌락과 느낌에 대한 치중,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한 무분별 등으로 범죄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폭력이 난무해 제율을 지키는 출가공통체를 통해 인간 자존감 회복 및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불자들은 명상들을 통해 스스로 자각을 줄이고 언행을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현상에 대해 이도훈 한양대 교수는 불교교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불교계가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사회의 가상성은 불교의 '환' 개념으로 설명 가능

하다"며 "이환 수환'이란 환 방편으로 인식해 현실로 믿는 것을 방지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명법 스님과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감각에 불교가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법 스님은 "과거 전통에 머물지 말고 법당, 불상 등 불교예술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도 "사이버공간을 적극 활용해 포교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이버 신행 공간은 장애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가능한 만큼 불교의 대중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관련 기사 9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풍으로 전국 사찰 피해 입어

대흥사 3개 동 파손 등 제주·전라 지역 집중

태풍 '볼라벤'과 태풍 '덴빈'의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 사찰의 전각 기와가 파손되고 인근 나무가 부러지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월 30일 조계종 태풍피해 집계 현황에 따르면 제주 관음사, 해남 대흥사 등 제주, 전라도 지역의 사찰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 27일 볼라벤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제주도는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과 12m 높이의 파도와 폭우로 많은 사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 관음사는 입구 하천이 범람하며 진입이 금지됐으며 일주문 기와지붕을 비롯해 각 전각 기와가 파손됐다. 제주 보현사는 나무 전신주가 넘어져 단전 피해를 입었으며 산내 암자들도 단전 및 도량 유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태풍의 위험반경에 노출된 호남 지역에서는 사찰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남 해남 대흥사는 건물 56채의 용마루와 처마루 기와가 망가졌고 건물 3동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찰 안팎의 나무 500여 그루도 부러졌다.

구례 화엄사는 각황전 기와 일부



전신주가 쓰러져 단전 사태를 빚은 제주 보현사 모습

가 파손됐고 대웅전 후면 벽체가 손상됐으며 일주문 앞 담장도 일부 무너졌다.

순천 송광사는 경내 나무만 100여 그루가 쓰러졌고 전각 20동의 기와가 일부 소실됐다.

광주 무각사, 여수 은적사 등 다수 사찰이 경내 나무를 비롯한 기와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제 금산사에서는 '사람나무'로 불리며 많은 연인이 즐겨 찾던 '연리지(連理枝)' 가지가 부러졌다. 연리지는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가 이어져 한 몸이 된 것을 말하며 예로부터 귀하고 상서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산사는 이 밖에도 각 전

각의 기와가 유실됐고 부러진 나무들로 한때 진입로가 막히기도 했다.

고창 선운사는 전각 용마루 기와들이 내려앉았고 참나무가 넘어가면서 보호 철책이 파손됐다. 위도에 있는 내원암은 아예 전화가 불통 상태여서 피해 상황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 직지사에서는 300년 된 감나무가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충청지역에서는 공주 마곡사가 인근 전신주가 여러 개가 쓰러지는 등 긴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마곡사는 산내암자의 피해가 심각해 공주시에 긴급 복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노덕현·정혜숙 기자



8월 29일 조계사 앞마당에는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노동자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무차대회는 노동운동에 대한 불교계 최초 행사다.

해고의 아픔, 불심으로 보듬다

8월 29일, 노동자와 함께하는 무차대회 열려

불안정한 신분과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저녁공양을 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8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 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차대회는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장애인 등 각계 각층 시민 500여 명을 초청해 함께 공양하며 이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노동자를 부처님으로'를 주제로 열린 1부 행사는 쌍용차 해고사태로 인한 희생노동자 22명을 위한 추

모 타종 및 묵념으로 막을 올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전도제를 개최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애환을 치유하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했다. 향후 보다 활발히 사회 약자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애환을 들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일일히 조계사에서 준비한 떡을 나눠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참석한 다른 스님들도 직접 국자와 주걱을 들고 밥과 국을 나눴다. 이어 스님들을 삼삼오오 노동자들의 틈에 섞여 함께 공양하며 이들의 애환을 들었다.

이어 '노동자, 불교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신명나는 공연들이 펼쳐졌다.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곡들이 불려지며 그동안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는 시간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904호 INDEX	
종합 백양사 종단과 갈등 심화 한·중 불교는 한 뿌리 표창사 前주지 황령 조계종 노동위원회 발족 사랑의 교회 공사 법정으로	2·3
시방세계 사찰음식 나눔 캠프	5
신행 청소년 특성화 캠프 현장	6
부처님 10대 제자에게 배운다 14 아난다 <상>	
종단 중정 및 방장 2012 하안거 해제 법어	4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러의 시각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지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법스님의 법어!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현불샵** ☎ 02)2004-8216 동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